

『 바다가 만들어내는 기적, 중리 신비의 바닷길 』

지리교육과 06학번 류보경

☞ 답사포인트

- 바닷길이 열리는 현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 육계사주의 형성원인과 그 과정이 대하여 알아보자.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고 관심을 가져보았을 신비의 바닷길.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해수간만의 차로 인해 자연이 만들어내는 장관이다. 우리가 답사를 가는 중리 신비의 바닷길은 또한 이러한 곳들 중 한 곳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진도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주변의 경관이 매우 뛰어나 진도에 절대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곳이다.

1. 중리 신비의 바닷길



〈중리 육계도〉

출처: 노매드 관광청

땅끝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해남군 송지면 중리 바닷가. ‘허준’의 촬영지로 더욱 알려져 있는 이곳은 땅끝으로 유배 간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시킨 대목을 담은 곳으로 유명하다.

중리 앞에는 시루섬(중도)과 죽도(대섬)라는 두 개의 섬이 있다. 죽도와 중도는 간조시에 노루목-죽도 간 1.2km와 중리-중도 간 0.8km가 연륙이 되는 육계도이다. 죽도는 사리³⁸⁾ 때에만 연륙이 되지만 중도는 간조³⁹⁾ 때마다 연륙이 된다.

바닷물이 하루 두 차례씩 들고 나는 것과 더불어 조류의 속도나 파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치등(바닷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38)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클 때, 보통 보름달과 그믐달에 나타난다.

39) 썰물 때,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

2. 바닷길의 빈도는 왜 다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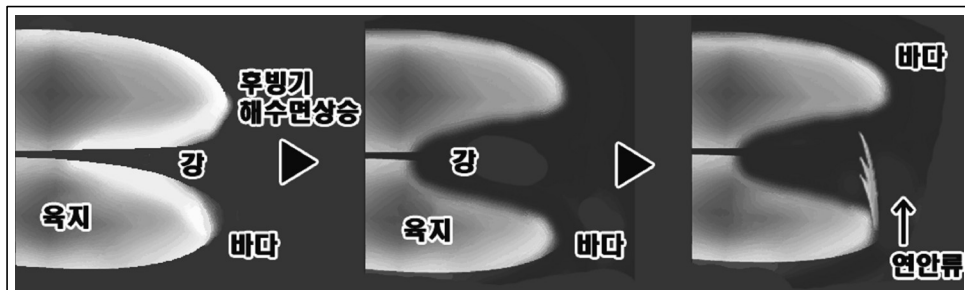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바닷길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곳 중리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여러 곳에서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그 장소마다 빈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인천의 실미도나 화성의 제부도는 거의 매일, 충남 보령의 무창포해변 등은 한 달에 절반 이상, 진도의 경우 1년에 약 8회 정도 발생한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바닷길이 생겨나는 것은 쉽게 말해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이다. 해저면의 수심이 다르다는 것도 바닷길이 제각각 다른 주기로 생겨나는 한 이유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 조수간만의 차이가 12시간 주기, 15일 주기, 또는 1년을 주기로 달라진다는 점이 바닷길의 빈도를 좌우하는 또 다른 이유다.

3. 바닷길의 진실

1) 사취와 사주

✓사취의 형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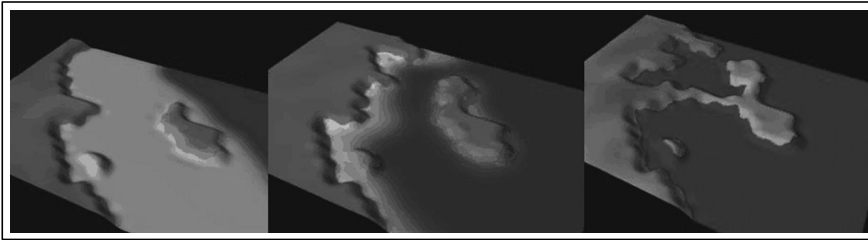


후빙기 해수면의 상승으로 만이 형성되고, 연안류에 의해 모래가 이동·퇴적하면서 사취를 형성하게 된다. 사취가 사주로 성장하여 만을 막으면 석호가 형성된다.

- 사취(spit)-일반적으로 만의 입구에 생기며 주로 연안류에 의해 형성되는 좁고 기다란 해안퇴적지형이다.
- 분기사취(recurved spit)-선단부가 육지 쪽으로 구부러지고 비치리즈로 이루어진 몇 개의 가닥으로 갈라져 있다.

- 첨상사취(cuspate spit)-작은 섬이 사빈의 전면에 위치하여 파랑을 가로막아 모래가 다소 많이 쌓여 약간 돌출하게 되면서 모래가 점점 사빈에서 섬을 향해 쌓여 나가 기저부가 넓고 선단부가 뾰족하게 형성된 사취를 가리킨다.
- 사주(만구사주)(bay-mouth bar)-단순히 사취가 성장하여 작은 만을 완전히 가로막는 것을 뜻하며 배후에 생기는 호소를 석호라 한다.
- 연안사주(offshore island 또는 barrier island)-사취와 달리 양쪽 끝이 육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모래섬을 말한다. 세계 각지의 해안에서 널리 관찰되며 미국 텍사스주의 멕시코만 연안에 그 발달이 탁월하다.

2) 육계사주



《육계사주 형성과정》

출처: <http://kr.blog.yahoo.com/dolmen66>

초기 → 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만의 형성 → 파랑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한 사취의 발달
→ 사주로 발달하여 섬과 이어짐.

육계사주는 육지에서 뻗어나간 사취가 섬과 연결된 것을 가리키며 이렇게 육지와 이어진 섬을 육계도라고 한다. 육계사주는 섬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 육지 쪽으로 진행되어 오던 파도가 섬 뒷부분에서는 그 힘이 약해져 퇴적이 일어나 형성되거나 연안류에 의해 운반된 토사의 퇴적에 의해 사취의 성장이 촉진되어 발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이 전형적인 육계도이며 그 외에도 충남 보령의 무창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등에서도 나타난다. 중리나 진도의 경우 현재 육계도(또는 육계사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육계사주처럼 항상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조 시에만 두 섬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보다 두 섬 사이의 사주가 보다 더 발달하게 되면 육계도가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5. 맺음말

TV와 인터넷 등 대중매체로만 접했던 신비의 바닷길. 자연이 만들어내는 그 마술 같은 현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던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자연의 섭리에 의한 장관 앞에 인간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일 뿐이었다. 눈부신 석양과 함께 어우러지던 형제 대섬과 바닷길과 바다와 주변의 풍경들은 너무나 환상적이었다.

자연의 신비한 현상과 장관들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나라 전체에 있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이용을 통하여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 생각해보기

-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진도를 떠올리게 된다. 진도의 규모 탓도 있겠지만 바닷길이 열리는 시기에 맞추어 개최되는 여러가지 행사와 그에 따른 많은 홍보도 관광객 유치에 크게 한 몫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리의 경우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충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해남이 중리를 관광자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참고문헌》

- KDIC관광정보팀 / 1997 / 그곳에 가보고 싶다:전남 빛고을 / 한국자료정보
- 권혁재 / 2006 / 지형학 / 법문사
- 권혁재 / 2006 / 자연지리학 / 법문사
- 김창환 / 1993 / 육계사주 / 한국사진지리학회
- 2004 / 고등학교 한국지리 / 대한교과서
- 김종일 외 / 2002 / 남도해안 2000리 길 / 성하출판

《참고사이트》

- 진도군 문화관광(<http://tour.jindo.go.kr>)
- 예향진도신문(<http://blog.daum.net/jindothink/10598066>)